

걸으면서 느끼는 전통의 향기 남산골 한옥마을



신록의 계절을 맞아 생활 속에서 걷기운동을 실천하려는 당노인들을 위해 걷기 좋은 코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달에는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과 옛 전통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남산골 한옥마을을 찾아가 보았다.

서울 도심에 이런 곳이?

남산 북쪽 기슭 한옥마을이 들어선 필동(筆洞)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흐르는 계곡과 천우각이 있어서 여름철 피서를 겸한 놀이터로 이름있던 곳이다. 또한 청학이 노닐었다고 하여 청학동으로도 불렸다. 청학동은 신선이 사는 곳으로 불리울 만큼 경관이 아름다워 한양에서 가장 경치 좋은 삼청동(三清洞), 인왕동(仁王洞), 쌍계동(雙溪洞), 백운동(白雲洞)과 더불어 한양 5동으로 손꼽히던 곳이다.

이곳의 옛 정취를 되살려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골짜기를 만들고 물을 흐르게 하였으며, 정자를 짓고, 나무를 심어 전통정원을 조성하였다. 2,400평 대지 위에 서울의 팔대가 중 하나였던 박영호 가옥으로부터 일반평민의 집에 이르기까지 전통한옥 다섯 채를 옮겨놓았다.

이들 한옥들에는 집의 규모와 살았던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가구들을 예스럽게 배치하여 선조들의 생활모습을 직접 보고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전통공예관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능보유자들의 작품과 관광기념상품을 늘 전시하고 있다.

전통한옥과 공예품에 살아있는 조상의 얼

남산골 한옥마을에는 순정효황후 윤씨 친가, 해풍부원군 윤택영댁 재실, 부마도위 박영호가옥, 오위장 김춘영 가옥, 도편수 이승업 가옥 등의 전통 한옥들이 옛 모습 그대로 옮겨져 있어 눈길을 끈다. 건물 외관 뿐 아니라 방과 마루, 부엌, 사랑채 등의 내부 또한 조상들의 생활 모습 그대로 꾸며져 있어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전통공예관에는 청자, 백자, 분청사기 등의 도자공예품과 금속, 목칠, 복식, 악기공예품 등 우리 조상들이 생활습성에 알맞은 쓰임새 대로 다양하게 만들어 사용해 온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전통문화의 멋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남산골 전통정원과 서울천년타임캡슐

서울의 상징인 남산은 옛 이름을 목멱산이라고 하였으며, 도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남산으로 불리어 왔다. 남산은 그 자연의 경치가

아름다워 우리의 조상들이 골짜기마다 정자를 짓고 자연의 순리에 시·화로 화답하는 풍류생활을 하던 곳으로 각종 놀이와 여가생활을 위하여 수려한 경관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 곳 남산골 전통정원 내에는 그 동안 훼손되었던 지형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남산의 자연식생인 전통 수종을 심었으며, 계곡을 만들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였고, 또한 정자·연못 등을 복원하여 전통양식의 정원으로 꾸몄다.

정원의 서쪽에는 물이 예스럽게 계곡을 흐르도록 하였고, 주변에는 고풍의 정자를 지어 남산 기슭의 옛 정취를 한껏 느끼도록 하였다.

전통정원 남쪽에는 서울 정도(定都) 600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을 1994년 11월 29일 지하 15m지점에 매설하였다. 보신각종 모형의 타임캡슐 안에는 서울의 도시모습, 시민생활과 사회문화를 대표하는 각종 문물 600점을 수장함으로써 현 시대의 사회상이 400년 이후인 2394년 11월 29일에 후손들에게 공개될 것이다. 

♣ 이용정보 ♣

- 관람 운영시간 : 오전 9시~오후 8시
- 휴무일 : 매주 화요일 (단,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무일로 함)
- 관람료 : 무료관람
- 지하철 3, 4호선 충무로역 하차, 3번출구 (매일경제신문사 사잇길로 200m)
- 버스 : 0013, 0211, 104, 105, 263, 371, 400, 604, 7011번 등. 퇴계로3가 국동빌딩 앞 하차
- 문의 : 02-2266-6923

